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연구실 안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기능, 온라인 쇼핑의 맞춤형 추천, 내비게이션의 교통 예측까지 모두 인공지능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드는 순간, 인공지능은 하나의 배경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기술일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큽니다. 특히 청소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세대 간 기술 격차를 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익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기술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지원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화로 인해 많은 직업이 변화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던 직군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윤리를 검토하는 직업은 앞으로 수요가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겪게 될 사회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언제나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에 숨어 있는 편향이 알고리즘을 통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나 나이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예측 시스템이나 신용 평가 시스템에서도 편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편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가 협력하여 표준과 규범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논의 없이는 인공지능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을 차세대 전략 기술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데이터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직결됩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국제 안보 질서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율 무기 시스템, 사이버 전쟁 기술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국제 규범과 협약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은 국제 협력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후 변화, 전염병 대응, 우주 탐사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공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국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창의성과 감정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면, 우리가 기술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기술적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가치의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가 다음 달부터 1년3개월 동안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초 토허제 해제를 둘러싼 논란 이후 지난 3월에 6개월간 확대 지정한 조치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는 내년 12월31일까지 토허제 적용을 받게 된다.

토허제 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린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광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아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 등 8곳(44만6779㎡)도 신규로 토허제 구역에 포함됐다. 신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목요일은 오늘(18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12시~18시)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경기남부 5mm 안팎을 비롯해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적게는 5mm 많게는 20mm 입니다.  
  
내일(19일) 오후부터 토요일인 모레(20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간 예상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등에 10~40mm, 경기남부 20~60mm 등 적게는 10~많게는 60mm 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국의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글로벌 K-POP 그룹 엔하이픈(ENHYPEN)과 함께 제작한 글로벌 홍보 영상 'Let’s Play, Seoul My Soul'을 19일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서울의 대표 정책과 명소를 담아 세계인에게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엔하이픈은 지난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룹으로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젊고 역동적인 서울의 이미지를 전할 적임자로 꼽혔다. 영상은 '영감(Inspiration), 연결(Connection), 재미(Excitement), 에너지(Energy)' 4대 키워드로 구성됐으며, 서울야외도서관·정원도시·서울패션위크·한강버스·한강축제 등 주요 정책과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여의도공원 등 도시 명소가 담겼다. 낙산공원과 남산서울타워도 등장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 예정이다.

영상은 본편(1분)과 TV 광고용(30초) 외에도 멤버별 '서울 7色 매력'을 소개하는 쇼츠 7편으로 제작돼 순차 공개된다. 해외에서는 CNN과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OTT 플랫폼 'Max' 및 유튜브 광고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 노출된다. 국내에서는 지하철·옥외광고와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SNS 등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영상 공개와 함께 유튜브 구독자 대상 시청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 전원에게 엔하이픈 디지털 굿즈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월드투어 관련 아이템, 서울시 굿즈 등도 증정한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엔하이픈의 팬덤 파워를 통해 서울의 젊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알리고, 서울시 정책과 도시 브랜드가 전 세계 시민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